

보도시점

2024. 4. 3.(수) 11:00
4. 4.(목) 조간

배포

2024. 4. 3.(수) 09:00

한우 사육기간 단축으로 두 마리 토끼 잡는다

- 농식품부, 한우 단기사육 사례 발굴 및 모델 개발 등을 통해 농가 생산비는 낮추고, 국산 소고기 가격은 합리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현행 30개월*에 달하는 한우 사육기간을 단축하여 농가는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소비자는 보다 저렴하게 한우를 소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사육기간을 단축한 한우를 ‘저탄소 축산물 인증’하는 제도를 확산하는 한편, 전국의 한우 단기사육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성공 요인을 분석하고 전국 다양한 농가에 적용할 수 있는 적정 사육모델 개발을 올해 완료한다고 밝혔다.

* 미국·호주 등 축산 선진국 18개월보다 1년이 더 길며, 한우를 30개월 사육하는 이유는 근내지방 섬유(마블링)를 고기에 고르게 배어들게 해 맛을 좋게 하기 위함

2022년 말부터 사육 과잉으로 인한 공급 증가*, 금리 인상 등에 따른 수요 감소로 한우 도매가격 약세가 이어지고 있다. 반면 2022년 이후 국제 곡물가격 상승으로 생산비의 약 60%를 차지(송아지 가격 제외)하는 사료 가격**은 높아져 농가소득이 크게 하락하는 등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여기에 더해 기후변화와 탄소중립에 관심을 가지는 소비자가 늘어나면서 환경에 부담을 덜 주고 탄소를 보다 적게 배출하는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다.

* 한우 도축마릿수(만마리) : (평년) 77.4, ('22) 86.9 → ('23) 92.9('22 대비 6.9%↑)

** 배합사료 가격 평균(원/kg) : (평년) 422, ('20) 412 → ('23) 578('20 대비 40%↑)

*** 한우비육우 소득(천원/100kg) : (평년) 1,151, ('21) 1,425 → ('23) 506('21 대비 64%↓)

이런 상황에서 농식품부는 한우 사육기간을 짧게 하면 농가, 환경, 소비자에게 이득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한우 사육기간 단축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강원대 박병기 교수팀에 따르면 “현행 30개월 사육 대비 24개월 사육 시 사료 비용이 약 32% 절감되고, 온실가스 배출은 약 25% 감소한다.”고 한다.

한편 한우 생산비용 감소는 궁극적으로 가격 측면에서 소비자 선택권을 넓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우는 수입육 대비 고유한 맛과 품질으로 수요층이 두터우나, 보다 저렴한 가격대를 원하는 소비자 수요층도 늘어남에 따라 사육기간을 단축한 한우는 장기적으로 소비자 선택권을 넓힐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사육기간 단축 농가 사례>

고창 중우농장은 한우 약 600두를 사육하는 농가로, 출하월령은 24개월로 평균(30개월) 대비 6개월이나 이르게 출하하면서 1⁺⁺ 소고기 등급 출현율은 49%로 전국 평균 수준(35%)을 웃돌아 생산비는 낮추면서도 품질 좋은 소고기를 생산하고 있다. 농장주 김문석 대표는 “키우고 있는 암소를 활용해 송아지를 농가에서 직접 생산하고 있는데, 암소 유전능력 분석*을 통해 매년 능력이 떨어지는 암소를 번식에 활용하지 않고 고기소로 비육하는 것이 비결”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 농장은 사육기간 단축으로 생산비를 전국 평균 약 600만원 (송아지 가격 제외) 대비 150만원 가량 절감하고 있다.

* 모근을 활용하여 도체중, 등심단면적, 등지방두께, 근내지방도 등 유전능력 분석

강진 장수팜은 한우 약 200두를 사육하는 농가로, 출하월령은 약 27개월이다. 농장주 황정민 대표는 “무항생제, HACCP, 깨끗한 축산농장 인증을 받았으며, 소 1마리당 사육공간을 기준보다 50% 이상 추가로 제공하고 소가 뛰어놀 수 있는 넓은 초지를 별도로 확보하여 자연스럽게 조사료(풀사료) 섭취를 늘린 것이 출하가 빨라진 비결인 것 같다.”고 밝혔다. 해당 농장도 사육기간 단축과 조사료 급이를 통해 생산비를 전국 평균 대비 240만원 가량 절감하였다고 밝혔다.

김해 태현농장은 한우 생육에 도움이 되는 여러 부산물을 활용하여 자가 배합사료*를 직접 제조하여 매일 3번 제공**함으로써 사료의 섭취량을 늘리고, 1⁺⁺ 소고기 등급 출현율도 64%로 매우 높게 유지하고 있다.

* 농장에 직접 사료배합기를 설치, 여러 원료를 직접 구해 원료와 건초(조사료)를 섞어서 만듦

** 일반적으로 일 2회(12시간 단위) 급여, 일 3회 급여 시 섭취량, 건강 상태 및 섭취 문제 등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어 섭취량 관리에 도움

이와 같은 사례들은 사육기간을 단축하면서도 최고의 소고기를 생산하고, 암소 유전능력 분석, 넉넉한 공간, 자가배합사료 급여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생산비를 절감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사례들은 우리 한우산업이 지향해야 할 방향이다.

농식품부는 사육기간 단축을 위해 농협과 손잡고 강원대, 전남대 등과 함께 2022년부터 올해 12월까지 최적의 소 단기 사육모델을 개발하고 있다. 2022년 송아지 600마리를 구입하여 유전형질, 사육기간, 영양수준별 사양 시험 프로그램을 각각 적용하여 24개월, 26개월, 28개월령이 되었을 때의 경제성 분석과 맛(품질) 등을 평가하고 있다. 또한, 송아지 유전형질 분석을 통해 높은 등급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개체는 26~28개월을 사육하고, 낮은 개체는 최대 24개월령까지 사육하는 모델을 개발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5개의 한우 단기 사육모델* 프로그램을 만들고, 가격 경쟁력이 높은 별도의 한우 시장이 만들어지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저등급 예상 개체 - 24/26/28개월 사육, 고등급 예상 개체 - 26/28개월 사육

한편, 단기 사육된 한우의 맛 평가 연구를 진행한 한경대 김형상 교수팀은 일정 수준 이상의 근내지방을 유지할 경우, 25개월에 출하하여도 소비자가 느끼는 맛 차이는 미미한 수준이라고 평가하였다. 또한, 현재 사육기간을 단축한 한우는 ‘저탄소 축산물 인증’을 받아 일부 백화점 등에서 판매되고 있다. 저탄소 한우를 구매한 주부 A씨는 “환경에 관심이 있어서 구매했는데, 맛이 평소 접한 한우와 전혀 다르지 않다.”고 평가하였으며, 또 다른 주부 B씨는 “저탄소 한우를 구매할 곳이 제한적인데, 향후 유통물량이 늘어나 일반 마트에서도 구매할 수 있으면 가격도 낮아지고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김정욱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한우는 한국 고유의 품종으로 수입산 소고기에 비해 맛과 풍미가 뛰어난 것으로 평가받지만, 향후 농가의 경영안정과 한우의 가격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한우 단기사육 모델 보급을 확산하여 농가의 생산비는 낮추고, 소비자의 구매 부담도 줄이겠다.”고 밝혔다.

- 붙임 1. 고창 중우농가 사례
- 2. 강진 장수팜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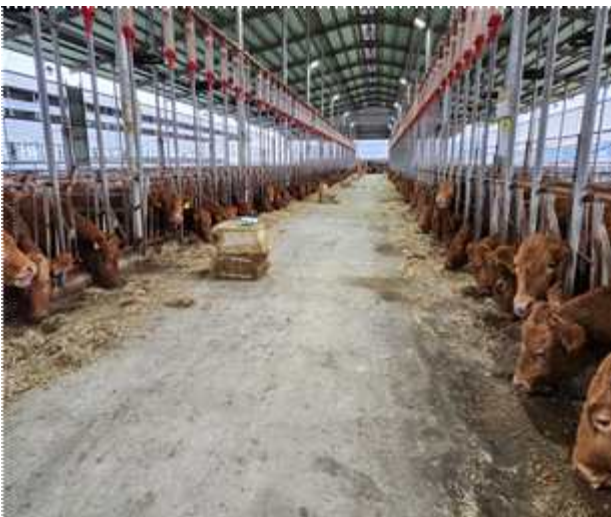
3. 김해 태현농가 사례

4. 소 단기사육 모델 마련 시범사업

담당 부서	축산정책관실 축산정책과 축산경영과	책임자	과 장	정경석 (044-201-2311)
		담당자	사무관	김철기 (044-201-2315)
		책임자	과 장	이연섭 (044-201-2331)
		담당자	사무관	김정수 (044-201-2332)



- (농장 개요) 전북 고창 소재, 한우 약 600마리 사육
- (출하월령 단축 방법) 자체 우수 암소 선발, 고영양 사료 급여
 - 송아지는 보유 암소를 활용하여 직접 생산하며, 우수 암소를 확보하기 위해 매년 암소 유전체를 분석하여 비교 열위 암소 20%는 도태
 - 소들이 사료를 자유롭게 섭취할 수 있도록 자유급여 실시
- (생산성) 전국 평균과 비교하여 출하월령, 1++ 등급 출현율, 도체중* 등 비교분석 * 소의 머리와 내장을 제거한 상태의 체중
 - (출하월령) 2022년 약 24개월(전국 평균 약 30개월)
 - (품질) 1++ 등급 출현율이 49%로 전국 평균 35% 대비 14%p 높음
 - (도체중) 446kg으로 전국 평균(454kg) 대비 약 8kg 작음
- (판로) 사육기간 단축으로 '23년 '저탄소 축산물 인증'을 받아 백화점 납품



농장 전경 1



농장 전경 2(조사료 직접 생산)

- (농장 개요) 전남 강진 소재, 한우 약 200마리 사육
- (출하월령 단축 방법) 사육공간을 넓게 유지, 사료 섭취량 상승
 - 사육공간을 15m² 이상 제공(법 상 10m² 이상만 제공하면 적합)
 - 비육우가 뛰어놀 수 있는 별도 운동장(초지)을 제공, 운동량 증가를 통해 사료 섭취량을 늘려 출하를 앞당기고 있음
- (생산성) 전국 평균과 비교하여 출하월령, 1++ 등급 출현율, 도체중* 등 비교분석 * 소의 머리와 내장을 제거한 상태의 체중
 - (출하월령) 2022년 약 27개월(전국 평균 약 30개월)
 - (품질) 1++ 등급 출현율이 100%(전국 평균 35%)
 - (도체중) 457kg으로 전국 평균(454kg)과 비교했을 때 차이 없음



농장 전경 1(넓은 운동장 제공)



농장 전경 2(사육공간을 넓게 함)

- (농장 개요) 경남 김해 소재, 한우 약 400마리 사육
- (출하월령 단축 방법) 자가배합사료 급여, 사료 섭취량 상승
 - 직접 만든 자가배합사료를 급여하며, 일 3회 급여 실시*를 통해 배합사료 섭취량 증대
 - * 일반적으로 일 2회(12시간 단위) 급여, 일 3회 급여 시 섭취량, 건강 상태 및 섭취 문제 등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어 섭취량 관리에 도움
 - 전 두수 우시장에서 송아지를 구매하는데, 구매 시 체형과 외관, 육종가*를 중시하여 구매 * 육종가: 해당 가축의 (양적 형질) 유전적 가치
- (생산성) 출하월령, 1++ 등급 출현율, 도체중* 등 비교분석
 - (출하월령) 2021년 약 27개월, 2022년 약 28개월(전국 평균 약 30개월)
 - (품질) 1++ 등급 출현율이 64%로 전국 평균 35%의 두 배 수준
 - (도체중) 455kg으로 전국 평균(454kg)과 비교했을 때 차이 없음



농장 전경 1



농장 전경 2(사료 직접 배합)

□ 추진 배경

- (생산측면) 한우 사육시 수익 극대화, 품질 제고 등을 위해 사육 기간 장기화 및 곡물사료 의존도 심화 등 고투입·장기 사육 생산구조 고착
 - * 한우 사육기간 : (00) 약 23개월 → (10) 약 28개월 → (20) 약 30개월
- (환경측면) 축산분야 온실가스 배출량*은 농업분야의 약 40% 수준을 차지하며, 향후 사육 기간 및 규모 확대 등으로 증가세 지속 예상
 - * 온실가스 배출량(백만톤CO2eq) : (11) 8.4 → (17) 8.6 → (30p) 11.0 → (50p) 11.6
- ☞ 「사육장기화 → 사료투입량 증가 → 생산비용 상승, 온실가스 및 가축분뇨 발생량 증가 → 가격상승 및 환경부하 증가」 ⇒ 장기적으로 사회적 후생 저하

□ 시험목표

- 유전형질에 따른 최적 출하월령 산출 및 사육기간 단축 방법 제시
 - (육질형) 「1⁺⁺등급 출하가 가능한 개체」로 사육기간 단축 또는 수익성 제고를 통한 생산성 향상 극대화 추진
 - * 목표 사육기간 : (현행) 약 30개월 → (단축) 26~28개월
 - (육량형) 「1등급 내외로 출하가 예상되는 개체」로 섭취량이 높은 사료를 통한 단기 비육 유도 → 생산비 절감 추진
 - * 목표 사육기간 : (현행) 약 30개월 → (단축) 24~28개월

□ 주요내용

- ① (송아지 입식) 가축시장 등에서 거래되는 6개월령 송아지 600마리 구매 및 유전능력 평가 등을 통해 유전능력별(육질형/육량형) 구분 입식
- ② (실증시험) 유전형질별로 각각 24~28개월령 사육기간에 맞춰 송아지를 배치하고 사양시험 프로그램 적용
 - * 유전능력 2종(육질형육량형) × 사육기간 3종(24/26/28개월) × 영양수준 2종(관행강화) × 비교군 5종
- ③ (병행과제) 실증시험을 토대로 한우 단기 사양 프로그램 개발 및 단기 출하육 유통·소비 구조 개선 개선방안 등 조사·연구

□ 향후 계획

- 최종 시험성적 등을 바탕으로 단기사육 사양프로그램 마련 및 농가 보급